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5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김재한(한림대 교수)

Contents

Chapter 01 **분단, 상흔(傷痕)의 현장**

- 01. 점령분할선 vs 군사분계선 7
- 02. 독일 DMZ vs 한반도 DMZ 14
- 03. 동서독 완충지대 vs 남북한 완충지대 19
- 04. 엘베강 vs 한강하구 24
- 05. 발트해 해상경계선 vs 서해 NLL 29
- 06. 리틀 베를린 vs 수복지구 34
- 07. 드레스덴 성모교회 vs 철원 감리교회 38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Chapter 02 **분단선, 그 경계와 금지를 넘어**

- 01. 찰리검문소 vs '돌아오지 않는 다리' 초소 47
- 02. 155km 베를린장벽 vs 155마일 남북분단선 51
- 03. 가르텐슐래거 vs 주성일 59
- 04. 베를린장벽 십자가 vs 적군묘 64
- 05. 한슈타인성 vs 궁예도성 68
- 06. 유럽 그린벨트 vs 철원 두루미 74

Chapter 03 **통일을 기다리며**

- 01. 뤼베크 소금창고 vs 연백/석모도 염전 83
- 02. 무스카우 공원 vs 백두산 87
- 03. 라인강 고성(古城) vs 임진강 고성(古城) 91
- 04. 포크트란트 벽돌다리 vs 승일교 98
- 05. 브란덴부르크문 vs 도라산역 102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5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01

분단, 상흔(傷痕)의 현장

- 01. 점령분할선 vs 군사분계선
- 02. 독일 DMZ vs 한반도 DMZ
- 03. 동서독 완충지대 vs 남북한 완충지대
- 04. 엘베강 vs 한강하구
- 05. 발트해 해상경계선 vs 서해 NLL
- 06. 리틀 베를린 vs 수복지구
- 07. 드레스덴 성모교회 vs 철원 감리교회

CHAPTER 01 _ 분단, 상흔(傷痕)의 현장

01

점령분할선 vs 군사분계선

- 점령과 휴전

독일과 한국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합군은 전쟁 내내 독일의 분단을 전후 관리 방안으로 논의하였다. 1945년 2월 알타에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소련 스탈린 의장은 전승연합국이 독일을 분할 점령하는 것에 합의했다. 소련은 프랑스의 연합국 정상회의 참석에 반대하였으나,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의 독일 점령 지역 일부를 양도 받아 독일 점령국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하였고, 7월 1일 발효됐던 독일 분단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연합국들이 패전국 독일을 관리하기로 한 구역대로 획정된 것이었다. 베를린 지역을 제외한 관리 구역들은 1871년 독일 통일 이전에 존재했었던 19세기 독일 여러 공국들의 경계선에 따라 책정되었다.

1949년 미국, 영국, 프랑스가 관할하던 독일 점령 지역들은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 FRG)으로 합쳐졌고, 소련 관할 지역은 독일민주공화국(German Democratic Republic; GDR)이 되었다. 서독과 연합국들은 자유공정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동독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에 동독에서 온 독일인들을 서독 국민으로 인정하였다. 1960년까지 250만 명 이상의 동독 사람들이 동독을 떠났다.

동독 측의 분단선 관리는 소련 NKVD(Narodnyy Komissariat Vnutrennikh Del, KGB 전신)의 국경수비대에 의해 시작되었다. 1946년부터는 현지에서 징병된 일종의 예비군 조직인 독일 국경경찰(Deutsche Grenzpolizei; DGP)로 보충되었고, 이후 1955년과 1956년에 걸쳐 소련은 국경관리권을 동독에게 넘겼다. 1961년 DGP는 국가인민군 산하가 되었고, 새로 명명된 동독국경수비대 국가인민군 산하에 있었다. 이것이 서독과의 경계선뿐 아니라 서베를린, 체코, 폴란드, 발트해 등과의 경계선을 관리하였다.



▲ 동서독 분단선

되들라로이트 마을에 보존·전시되어 있는 동독영토 표시비와 철책선, 감시탑이 보인다.

동서독 경계선에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발소 기둥 모양의 동독영토 표시비 2,600여 개가 약 500m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동독영토 표시비는 새조차 앉아 쉬는 것도 어렵게 위에 못이 박혀있고 서독 방향 상단에 금속의 동독 문장(紋章)이 부착되어 있는 콘크리트 기둥이었다. 또한 동서독 경계선을 따라 600개 전후의 감시탑이 세워졌다. 1961년부터 동독 정부는 동서독 경계선에 지뢰를 설치했다.

남북한 분단선이 어디냐는 질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38선이라고 대답한다. 1945년부터 1950년 전쟁 발발 때까지 북위 38도선으로 분단된 적이 있지만, 전쟁 이래 오늘날 남북한 분단선은 38선이 아니다. 남북한 분단선에 대한 명칭에는 휴전선(ceasefire line; truce line),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해 전쟁이 발발하였다. 1945년 획정된 38선이 파기된 것이었다. 1951년 7월에 시작된 휴전협상에서 북한 인민군 남일 수석대표는 38선이 전쟁 이전에 경계선으로 알려져 있었고 38선으로 돌아가면 그 어느 쪽도 손해 날 것이 없다며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국제연합군 등 3자가 서명한 정전협정은 38선 대신 새롭게 MDL을 규정하였고 MDL로부터 남북으로 2km까지의 DMZ도 규정하였다.



▲ 남북한 군사분계선 표식물

용산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군사분계선 표지판으로 뒷면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다.

군사분계선, 즉 MDL(Military Demarcation Line)은 장벽이나 철책선이 아니다. 약 248km의 MDL은 임진강 강변의 표식물 제1호부터 동해안의 표식물 제1,292호까지 약 200m 간격으로 세워져 있는 총 1,292개의 표식물의 행렬이다. 표식물 가운데 696개는 유엔군이 관리하고, 596개는 북한과 중국이 관리한다. 남쪽으로는 한국어와 영어로, 북쪽으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군사분계선’이라는 글씨와 표식물 번호가 씌어 있다. 오랜 세월 훼손되었거나 아예 없는 표식물도 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이나 표식물에 접근하는 것을 상대 측에서 사격으로 위협할

때도 있어 보수 자체도 쉽지 않다. 그래서 군사분계선을 현장에 서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이 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은 고라니나 사슴 같은 동물들이다.



▲ DMZ 남방한계선 표식판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2km 지점에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있다.

MDL이 현장에서 하나의 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일반인은 철책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DMZ(demilitarized zone) 남방한계선을 남북 분단선으로 착각한다. 동물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도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남북이 자기관할 지역에

설치한 각종 철책선이다. 남방한계선은 주로 북측의 침투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에 DMZ 북방한계선은 남방한계선보다 덜 명확하다. 북한이 북부한계선으로 부르는 DMZ 북방한계선에 해당되는 철책선은 한 겹 이상인 곳이 많고 그것도 일정하지 않으며, 고압선이 설치된 곳도 있다. 일부 군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MDL뿐 아니라 DMZ에도 출입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남북한을 분단시키고 있는 공간은 DMZ이다.

02 독일 DMZ vs 한반도 DMZ

- 실패와 성공

독일에도 DMZ(비무장지대)가 있었다. 동독과 서독 사이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후 패전 독일의 비무장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와 가까운 라인(Rhein)강 유역에 설정된 비무장지대이다. 1919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서 라인강 서안 지역을 15년간 연합국 점령 아래 두게 했고 동쪽 기슭 50km에 걸쳐 DMZ를 설정하였다. 1925년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발의되어 영국 런던에서 정식으로 체결된 로카르노조약(Pact of Locarno)으로 라인란트(Rheinland) 지역의 영구 무장금지가 보장되었고, 1930년 연합국 군대는 철수하였다. 1936년 나치 독일은 로카르노조약을 파기하고 군대를 라인란트 지역으로 진주시킴으로써 비무장은 파기되었다.



▲ 라인강 유역 DMZ

로렐라이 언덕에서 라인강 상류 쪽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라인강 유역의 비무장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전승국에 의해 설정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나치에 의해 파괴되었다.

1936년 독일이 라인란트 지역을 재무장할 당시 DMZ의 고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예방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는 주장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라인란트 DMZ가 큰 전쟁 없이 히틀러의 야심을 꺾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예방전쟁(preventive war), 즉 너무 늦기 전에 지금 공격하여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급격물실(急擊勿失; better-now -than-later) 논리에 근거한 주

장이다. 물론 이와 다른 견해도 있다. 1936년 당시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 예방전쟁을 수행했다라도 영국이 프랑스 측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라인란트 DMZ의 고수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라인란트 지역의 DMZ 설정 자체가 독일 영토의 침해였기 때문에 비무장이 지속될 수 없었고 독일의 도발을 막을 수도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잘못된 DMZ 설정은 오래된 분쟁을 완화시키거나 종식시키는게 아니라, 반대로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합의된 MDL(군사분계선)로부터 쌍방이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이다. 1953년 7월 31일에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쌍방은 DMZ에서 민사 경찰을 보총(rifle)과 권총(pistol)만으로 무장 가능하고, 방아쇠를 한번 잡아당길 때 총탄이 연속 발사되는 자동식 무기의 휴대는 금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즉 정전협정 상의 비무장은 자동소총 이상 무기의 금지이다.

북측 DMZ는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북한이 관리하여 왔다. 남측 DMZ는 명목적으로 유엔군이, 실제로는 대한민국 국군이 관리하고 있다.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을 맡았고, 대부분

남측 DMZ의 관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담당하였다. 1991년 10월부터 JSA는 국군 1사단의 최전방 관측초소 콜리어 지역을 제외하곤 국군 350여 명과 미군 250여 명으로 구성된 유엔사 경비 대대가 경비책임을 맡았다. 그러다가 2004년 11월 관문점 JSA 경비 임무가 한국군에 이양됨으로써 DMZ 남측 구간 모두를 한국군이 맡게 되었다.



▲ 북한강 유역 DMZ

북한강이 DMZ 남북한계선 오작교를 관통하고 있다. 왼쪽 및 오른쪽 유역뿐 아니라 하천도 DMZ에 속한다.

한반도의 DMZ는 독일의 DMZ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례이다. DMZ는 남한과 북한 사이 최전선에 설치된 휴전 완충 지대이다. 비록 정전협정대로 비무장이 실천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1953년 이래 전면전 재발의 억지에는 성공하고 있다.



CHAPTER 01 _ 분단, 상흔(傷痕)의 현장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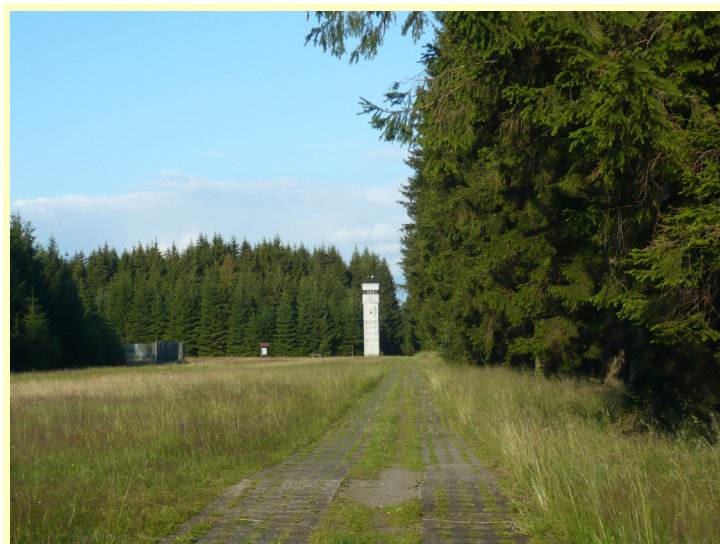
동서독 완충지대 vs 남북한 완충지대

- 완충의 대상

동서독 분단 이전에는 작은 도로를 제외하더라도 약 40개의 철도 노선, 약 30개의 도로(고속도로 및 국도), 약 140개의 지방 도로 등이 동서독을 연결하고 있었으나, 동독 정부의 차단조치로 10개의 도로(4개 고속도로 포함), 8개의 철도, 2개의 운하, 3개의 항공로만이 동서독 경계선을 통과하였다. 동서 베를린 간에는 8개의 통과로가 허용되었다.

동서독의 완충지대는 동독인의 서독행을 감시하기 위한 곳이었기 때문에 동독 영토에 설정되었다. 동독 정부는 동서독 경계철책선 안에 잡목을 제거하여 감시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조성하였다. 동독은 동서독 경계선에서 짧게는 20m, 넓게는 2km 정도 떨어져 담을 다시 만들었다. 동독 국경경비대를 포함해서 누구도 동독을 탈출할 수 없도록 동서독 경계선과 동독 내벽 사이의 공간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이로써 동독 경비대는 총알이

서독 땅까지 가지 않게 하면서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동독 내벽의 바깥쪽도 동독 관할지역이라 보수와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동서독 경계선 근방의 동독 쪽 지역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 동서독 경계선의 완충지대

동독 정부는 동독 쪽 지역에 수목을 제거하여 동독 주민의 탈출을 감시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와 감시탑을 설치하였다.

이에 비해 동서독 경계선의 서독 쪽 대부분에는 요새도 순찰로도 지뢰도 모두 없었다. “위험! 국경지역!(Achtung! Zonen-grenze!)”이나 “정지! 여기는 국경지역임(Halt! Hier Zonen-

grenze)”과 같은 경고판만 두었다. 독어와 영어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알리는 표지판은 있었지만 경계선으로 접근하는 데에 물리적 장애물은 없었다.

동서독 분단선에는 한반도 DMZ와 같은 무장된 군대가 서로 대치하지는 않았다. 헤센(Hessen)주와 튀링겐(Thüringen)주 사이의 포인트 알파처럼 나토동맹군과 바르샤바동맹군이 서로 대치했던 경계선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완충지대에서는 감시할 수 있는 시계(視界)와 사격할 수 있는 사계(射界)를 확보하기 위해 잡목을 비롯한 각종 장애물을 제거한다. 즉 완충지대인지 아닌지는 잡목들이 제거되어 있는지 아닌지로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 간 완충지대는 DMZ이다. 이 공간은 상대의 도발과 침투를 경계하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쌍방은 모두 DMZ 내에서 또는 DMZ로부터 또는 DMZ로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강행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DMZ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받는 군인과 민간인의 수는 각방 사령관이 결정하지만,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휴대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

가 규정하며, 다른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 한반도 DMZ의 완충지대

DMZ 남북한계선의 오른쪽은 DMZ 내부이다. 수목이 울창한 DMZ 밖과 달리 수목이 제거되어 있다.

동독의 관할 지역에 있었던 동서독의 완충지대와 달리, 남북한의 완충지대는 남북 공동의 관리이거나 실제적으로 반반씩 포함된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완충지대 설치의 목적이 상대의 군사적 침투방지 목적보다 자국민의 탈출을 막는 것이 더 컸던 동독과 달리, 한반도 DMZ는 상대의 군사적 도발이나 침투를 막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04

엘베강 vs 한강하구

- 분단의 하천과 하천의 분단

동서독 분단선을 거치는 큰 하천은 세 가지이다. 북해로 가는 엘베(Elbe)강, 엘베강의 지류인 잘레(Saale)강, 북해로 가는 베세르(Weser)강 지류인 베라(Werra)강 등 세 가지이다. 베세르 강은 서독을 향할 때 동독을 한 차례 더 들러 흐르는 강이다. 이 가운데 엘베강은 동서독 분단선을 따라 약 100km를 흐른다.

하천지역 경계선에 대해 동서독은 다른 입장을 가졌다. 서독과 서방동맹국들은 경계선이 동쪽 강둑을 따라 지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독과 소련은 타알벡 원칙(Talweg principle)에 의해 하천 중간 지점이 경계선이라는 주장을 했다. 타알벡은 골짜기(tal)의 길(weg)이라는 뜻의 독일어로, 강물이 가장 적을 때 하류로 항행하는 선박에게 가장 좋은 수로가 경계선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에서는 양쪽 둑에서의 중앙선으로 대체된다.



▲ 엘베강

왼쪽 유역은 동독지역이었고 오른쪽 유역은 서독지역이었다. 여기서부터 상류 100km까지의 엘베강은 동서독 분단선이었다.

실제로는 동서독이 하천을 각각 절반씩 관리하였는데, 항로는 그 경계선을 넘나들었고 분쟁거리가 되었다. 동독은 엘베강에만 30대의 쾌속순찰정을 운영하여 동독 탈출을 감시하였다. 또한 동독 쪽 뚝에는 철조망이나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였다. 엘베강 위의 교량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채로 방치되었고 파괴되지 않은 교량의 통행은 봉쇄되었다.

한반도 DMZ(비무장지대)를 지나는 하천도 여럿이다. MDL(군사분계선)이 강 중앙을 통과하는 지역에서는 MDL 표식물이 강에 설치될 수 없었고 강안(江岸)에 설치되었다. 그런데 정전협정에 의해 지정된 표식물 관리자가 실제적으로 그 지역 관리자와 다른 경우가 발생했다. 1958년 군사정전위원회는 강안을 관리하는 측이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MDL 표식물을 보수하고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포함된 강이 임진강, 북한강, 금성강이다.



▲ 한강 하구 수역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서 북한 쪽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임진강은 남북한 간 협력이 논의된 적이 있는 하천이다. 임진강과 북한강의 흐름은 상류국가와 하류국가를 구분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 강 상류 지역이 물 흐름을 막아 강 하류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반대로 하류 지역이 물을 댐으로 막아 상류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 하천 협력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북한강은 북에서 발원하여 금성천과 합류한 직후 MDL을 넘어 200m 정도 흘렀다가 다시 MDL 북쪽으로 200m 정도 돌아갔다가 바로 남쪽으로 쪽 흐른다. 파로호에서 북한강과 합류하는 수입천도 북한에서 발원하고, 춘천에서 북한강과 합류하는 소양강도 북한에서 발원한다. 북한강 북한 쪽 상류에 임남언제(堰堤)가 설치되었다. 남한에서는 금강산댐으로 부르는 이 댐으로 남한에 유입되는 북한강 수량은 현격히 줄었다.

금성강은 금성천으로도 불리며 북한(일부 지천은 남한)에서 발원하여 군사분계선을 한번 넘지만 DMZ 남방한계선까지는 미치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강으로 합류한다.

한강하구수역은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따라 남북한 모두에게 민간선박 이용이 개방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비무장 선박의 출입 개방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강 하구 수역의 출입은 별로 없었다. 1990년 교동도에서 김포까지 항행한 골재채취용 선박, 1996년 집중호우 때 북한에서 유도로 떠내려 온 소를 이듬해 구조한 해병대 선박, 2005년 용산 이촌동에서 경남 통영 한산도로 항행한 거북선 등 몇몇 사례에 불과하다. 흐르는 강물 위에서도 분단의 선은 엄존하는 모양이다.

CHAPTER 01 _ 분단, 상흔(傷痕)의 현장

05

발트해 해상경계선 vs
서해 NLL

- 직선해로와 우회해로

1945년 패전 독일을 분할 점령하기 위해 설정된 동서독 분단선은 바다에 설정될 이유가 없었다. 당시 발트해는 분할 점령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974년 6월 동서독 정부는 해상 경계선에 합의하여 10월 발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발트해의 해로(海路)를 우회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동독 정부는 분단선으로부터 시작한 15km 연안선을 방어선으로 지정하여 접근을 제한하였다. 동서독 분단선 인근지역뿐 아니라 나머지 연안지역인 폴란드 국경선까지의 발트해 연안에 서도 동독 국경경찰은 쾌속선과 감시탑 등의 시설로 동독 주민의 탈출을 막았다. 동독 주민들은 덴마크의 게저(Gedser) 항구, 트라페 강 서안의 서독지역, 발트해의 서독 해안지역, 덴마크 남부 섬 등으로 탈출을 시도하였다. 어떤 경우엔 국제여객선의 구조를 바라고 선박이 통행하는 바다 뱃길로 탈출하기도 하였다. 동

독 선박이 덴마크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선박 밖 바다로 뛰어 내리기도 했다. 발트해를 이용해 탈출하려다 적지 않은 동독인들이 사망했다. 이에 동독 정부는 동독 여객선에 무장 경찰을 배치하고 동독 주민의 여행을 제한하였다.



▲ 동서독의 발트해 경계선

구서독지역에서 구동독지역 쪽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동서독 육상 경계선은 모래 해변에서 시작하여 사진오른쪽 초목지로 연결되었었다.

우리나라 서해와 동해의 항로는 직선이 아니다. 인천에서 백령도로 가는 항로는 북한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운행되고 있고, 또 선박으로 금강산관광을 가던 항로도 북한 군사시설의

보안 때문에 해안을 따라가는 직선 항로가 아니었다.

과거 남한의 동해안과 서해안 및 도서의 해안에는 철책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북한의 남과 간첩 상륙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 해안 철책은 대부분 철거되었다. 바다에는 철책선이 없지만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 바로 NLL(Northern Limit Line)과 NLL에 기초하여 다양한 거리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어로한계선(어로저지선, 어로허용선)이다.



▲ 서해의 NLL

사진은 용산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모형도이며 붉은 선이 NLL이다.

1952년 9월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해상봉쇄선(클라크 라인)을 설정하였다. 정전협정은 해상 경계선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클라크 라인이 철폐되고 대신 NLL이 설정되었다. 백령도를 기점으로 한 42.5마일의 서해 NLL뿐 아니라 저진 기점으로 218마일의 동해 NLL도 있다. 총 260.5마일의 NLL은 총 155마일의 DMZ보다 더 길다.

북한은 유엔의 NLL설정을 수용하고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서해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였다. 남북한은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를 통하여 쌍방의 관할구역을 합의하였다.

1991년 12월 남북총리급 회담에서 서명 교환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1조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1992년 9월 남북총리급 회담에서 서명 교환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하고(제9조),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 되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 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하며(제10조), 공중불가침 경 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 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최근 북한이 NLL을 부정하고 있으나 지난 50여 년 동안 북한 스스로가 NLL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한편, 그 규범을 준수 해 왔다. 1984년 북한의 수해물자 지원시 접촉지점을 NLL선상 으로 하기로 합의했고, 2002년 및 2003년 나포·좌초된 북한선 박을 NLL상에서 북한에 인계하였으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도 NLL을 인정한 점 등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 의 도발로 인해 이 지역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06

리틀 베를린 vs 수복지구

- 분단마을과 이주마을

동서독 경계선은 시계(視界)와 사계(射界) 확보를 위해 거의 모든 건물이 철거되었다. 처음에는 경계선으로부터 500m 거리까지만 소개(疏開)시켰는데 5km까지 연장되는 지역도 많았다. 따라서 경계선 주변 거주 동독지역의 주민들은 다수가 거주지를 옮겨야만 했고, 경계선상에 위치했던 마을 대부분은 사라졌다.

소개시키지 않은 마을도 있다. 서독의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와 동독의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주 사이의 지크헤리-뵉크비츠(Zicherie-Böckwitz)와 서독 바이에른(Bayern)주와 동독 작센(Sachsen)주 사이의 뫼들라로이트(Mödlareuth)는 분단된 마을의 뜻으로 ‘작은 베를린(Little Berlin)’으로 지칭되었다. 50여 명의 주민이 거주했었던 뫼들라로이트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던 곳이라 동독 정부는 주민들을 이주시키지 못했다.



▲ 분단된 마을

독일 뉘른베르크 마을에 전시되어 있는 분단 시절의 마을 사진이다.

뉘른베르크 마을의 분단선은 1952년 목재 벽으로 건설되었다가, 다시 1966년 콘크리트 장벽으로 대체되었다. 1952년부터 1989년까지 상호통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80m 거리의 장벽 건너편에 가기 위해서는 80km를 돌아가야 했다. 베를린장벽(Berliner Mauer)이 붕괴된 1개월 후인 1989년 12월에 뉘른베르크 분단선은 개방되었고 1990년 6월 뉘른베르크 콘크리트장벽도 철거되었다.

동서독 분단선과 달리 한반도 DMZ(비무장지대)에서는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소개(疏開)할 주민도 철거할 건물도 없었다. 예컨대 일제시대까지 변화가 없던 경원선 중간 기착점 철원읍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으로 이미 파괴된 상태였다.



▲ 승리 전망대

철원 승리전망대는 DMZ 남방한계선 전망대 가운데 DMZ 내부를 가장 넓게 관측할 수 있는 곳이다. 군사분계선과 북측 마을을 조망할 수 있다.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의 승리전망대는 아산관측소를 2002년 확장하여 민간인에게 개방한 전망대이다. 승리전망대는

DMZ 벨트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그 전망도 동부 DMZ와 서부 DMZ를 아우른다. 앞 전망이 꽤 트인 곳인데, 전망대에서 북측으로 보이는 평야가 아침(牙沈)리 마을이다. 그 곳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금강산 관광을 하면 일정이 맞아 떨어진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편 새로운 마을이 정책적으로 건설되었다.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발생한 경북 울진의 이재민 66세대를 승리전망대 뒤 바로 남쪽에 있는 마현리로 이주시켰다. 1954년 유엔사로부터 행정권을 이전 받은 대한민국 정부는 수복(收復)지구 민간인 입주계획에 따라 토지주인이 확인되지 않았던 양구 해안면, 고성 명파리, 철원 월하리, 철원 마현리 등으로 주민을 이주시켜 마을을 조성했다. DMZ 내에도 조성된 마을이 있다. 북측의 기정동 마을과 대비되는 대성동 마을인데,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조세 및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대성동 남자와 결혼한 타 지역 출신 여자는 거주가 허용되지만, 대성동 여자와 결혼하는 타 지역 출신 남자는 거주가 불허되며, 체류조건도 있어 영원히 주민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07

드레스덴 성모교회 VS 철원 감리교회

- 전쟁의 기억

독일에는 전쟁으로 파손된 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건물들이 몇몇 있다. 베를린의 빌헬름황제기념교회(Kaiser Wilhelm Gedächtniskirche)가 대표적 건물이다. 독일 제2제국 초대황제 빌헬름 1세를 기념하기 위해 손자인 빌헬름 2세가 추진하여 1895년 9월 1일 봉헌된 건축물이다. 1943년 11월 연합군이 베를린을 공습했을 때 교회건물이 파괴되었다. 1957년 3월 베를린시는 건물 보존에 관한 오랜 논란 끝에 파괴된 모습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1959~1961년 기간에 팔각형 교회 건물과 육각형 탑을 건축했다. 파괴된 모습이 듬성듬성 상해버린 차와 비슷해서 ‘텅빈 이빨’이라고 불린다.



▲ 드레스덴 성모교회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드레스덴 성모교회는 폭격한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여 당시에 남은 벽을 살려 재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베를린보다 더 극심한 연합군 폭격을 받았던 독일 도시는 중세 작센왕국의 수도였던 드레스덴(Dresden)이다. 드레스덴은 독일의 히로시마로 불린다. 드레스덴은 1945년 2월 영국과 미국 공군이 65만 발의 소이탄 등으로 폭격한 도시인데, 당시 6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레스덴 성모교회(Frauenkirche)는 1736년 완공되어 바흐가 작센왕을 위해 오르간 연구를 했다는 교회인데, 1945년 2월 15일

교회건물은 불길에 녹아 내려앉았다. 동독 정부는 연합군 만행을 보여주기 위해 방치하였다. 그러다가 독일 통일 이후 노벨 수상자 그리고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 지원 조직이 성모 교회를 2005년 10월 재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살아남은 새까만 벽을 살려 재건축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폭격을 가했던 미국과 영국이 복원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6·25전쟁도 많은 건물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구(舊)철원의 감리교회 건물도 대표적 6·25전쟁의 폐허이다. 철원 감리교회는 벽돌로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1920년 건축되었다. 이화여대 캠퍼스를 설계한 미국인 건축가 보리스(William Merrell Vories)가 화산석과 화강석의 석축을 가미하여 지하1층과 지상 3층으로 1936~1937년에 재건축하였는데, 일제시대와 북한 정권 치하 때에 기독교 반공 청년의 모임장소로 활용되었다. 이후 6·25전쟁 때 폭격으로 파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파괴된 건물의 모습은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한편 그 옆 자리에는 교회를 복원시키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 철원 감리교회

6·25전쟁 때 폭격으로 파괴된 모습 그대로 전시되고 있다. 과거에는 민간인통제구역내에 있었기 때문에 보전될 수 있었으며, 민간인출입이 해제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종교단체에 의해 보전되고 있다.

민간인통제구역인 구철원 시가지에는 아직도 여러 폐허들이 존속하고 있다. 제2금융조합, 농산물검사소, 얼음창고, 제사(製絲)공장, 구철원역 등 여러 건물의 잔해를 볼 수 있다. 지금은 민간인통제구역이 아닌 철원 노동당사는 각종 음악회가 개최되었고 뮤직비디오도 촬영되는 등 일반인에게 꽤 알려진 명소이다. 1946년 북한에 의해 건축된 구소련식 무(無)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 벽만 멀쩡하게 남아있는 건물이다.



▲ 철원 노동당사

무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이라 벽면 위주로 남아있다. 벽면에 설치된 철띠는 건물 잔해를 지탱하기 위한 것이고 건물 후면에 더 많은 장치들이 있다.

해방 직후 북한이 공산독재정권 강화와 주민통제를 목적으로 지은 악명 높은 건물인 철원 노동당사에는 얽힌 이야기도 많다.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을 현대식 건물을 세우기 위해 가혹한 양민수탈과 술한 반공인사들에 대한 고문학살이 진행된 곳이었으니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비극이 스며있을 것이다. 노동당사는 2002년 등록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철원군 측에서 관리하고 있다.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파괴된 건물을 그대

로 남겨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비극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5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02

분단선, 그 경계와 금지를 넘어

- 01. 찰리검문소 vs '돌아오지 않는 다리' 초소
- 02. 155km 베를린장벽 vs 155마일 남북분단선
 - 03. 가르텐슐래거 vs 주성일
 - 04. 베를린장벽 십자가 vs 적군묘
 - 05. 한슈타인성 vs 궁예도성
 - 06. 유럽그린벨트 vs 철원 두루미

CHAPTER 02_분단선, 그 경계와 금지를 넘어

01

찰리검문소 vs
'돌아오지 않는 다리' 초소

- 기억과 긴장

서베를린을 관할했던 연합군은 알파(Alpha), 브라보(Bravo), 찰리(Charlie) 등 몇 개의 검문소를 설치했다. 그 가운데 제3검문소인 찰리검문소(Checkpoint Charlie)는 미군 탱크와 소련군 탱크가 검문소에서 서로 대치한 1961년 10월부터 1990년까지 비(非)독일인의 동서독 간 주요 통로였다. 검문소 지붕에는 미국 국기 성조기가, 앞에는 “당신은 미국 구역을 떠나고 있습니다(You are now leaving the American sector)”라는 영어표지판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의 간판과 함께 서 있었다.

베를린장벽 등 여러 분단 시설물은 관광 목적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베를린의 찰리검문소는 1990년 폐쇄된 후 한동안 볼 수 없었지만 2001년 다시 설치되었다. 실제 검문소 물품들은 서베를린 켈렌도르프(Zehlendorf)에 있는 동맹국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찰리검문소에서 동베를린 쪽(여기서의 베를린장벽은 동서로 뻗어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방위로는 북쪽)을 주시하고 있는 미군 복장의 사람은 돈을 받고 관광객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배우이다. 검문소 옆 찰리검문소박물관에는 1인 잠수함, 자동차 트렁크, 탈출용가방 등 각종 탈출방법을 전시하고 있다. 검문소 앞에는 베를린 전역을 볼 수 있는 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열기구를 이용해 동독 탈출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 찰리검문소

동베를린 쪽에서 바라본 미군의 찰리검문소이다. 사진 속의 군인은 실제 군인이 아니고 돈을 받고 관광객과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다.

JSA(공동경비구역) 여행상품에 포함된 지역 하나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Bridge of No Return)이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JSA와 북한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 돌아오지 않는 다리

JSA와 북한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6·25전쟁 후 포로 교환 때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로 불리고 있다. 1976년 북한이 저지른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당시의 초소는 터만 남아있다.

군사분계선은 다리 가운데를 지나서 거의 90도로 꺾여 판문점 회의장을 가로질러 간다. 본래 널문다리 혹은 사천교라고 불렀으나 정전협정 이후 그 다리를 건너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전협정 직후 포로 송환용으로 사용되었고 1976년 북한이 저지른 도끼만행사건 때까지 북한군이 JSA로 출입하던 주요 통로였다. 도끼만행사건 이후 JSA의 공동경비를 취소하고 JSA 내에서도 군사분계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경비를 분리하였다. 북한이 판문점 서쪽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한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북한군은 유엔사의 교량 보수 제의를 거절했다.

JSA 돌아오지 않는 다리의 초소는 철거되었지만 군인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관광객은 약간의 호기심과 더불어 긴장된 관광을 하게 된다. 대조적으로 독일 베를린의 찰리검문소는 통일 이후 없어졌다가 관광용으로 다시 세워졌다. 과거의 긴장을 진지하게 기억하려는 사람들은 있어도 현재까지도 긴장하는 사람은 없다.

CHAPTER 02_분단선, 그 경계와 금지를 넘어

02

155km 베를린장벽 vs 155마일 남북분단선

- 기념석과 분단선

베를린장벽만을 동서독의 분단선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베를린장벽은 동서독 분단선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었다. 베를린장벽은 155km이었지만 동서독 간의 분단선은 1,400km에 이르렀다.

또 베를린장벽을 동서 베를린 사이의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베를린 외곽 동독지역과 서베를린 사이의 담들도 베를린장벽이다.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의 장벽 길이는 43km이었고, 다른 동독지역과 서베를린 사이의 장벽 길이는 112km로 더 길었다. 동베를린과 주변 동독지역 사이에는 당연히 장벽이 없었기 때문에 명칭도 어찌면 서베를린장벽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그 장벽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의 경계선이 라기보다 동독과 서베를린을 나누는 분단선이었다.



▲ 나치 건물 폐허 옆 베를린장벽

테러전시관은 서베를린 쪽 베를린장벽에 붙어 있는 나치스 테러기관의 폐허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1987년 베를린시 750주년 기념 전시회를 시작으로 통일 후에 전시관으로 조성된 곳이다.

본래 베를린은 동독지역에 속했지만 전승연합국들에 의해 다시 분할 관리된 도시였다. 그래서 베를린장벽과 동서독 분단선은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 1948~1949년 소련이 서베를린을 향하는 모든 육로를 봉쇄했을 때 서방연합국이 생필품을 서베를린에 공수한 이유도 바로 베를린 자체가 동서독 분단선으로부터 떨어져있기 때문이었다.

동독인들의 탈주에 위기감을 느낀 소련과 동독 정부는 1961년 8월 13일 일요일 서베를린을 둘러싼 155km 경계선에

철조망 방벽을 세웠다. 이후 철조망은 장벽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베를린장벽이다. 베를린장벽의 내용은 동서독 경계선과 대체적으로 유사했지만 장벽의 정도는 더 강했다. 그러나 이 굳건하게만 보이던 장벽도 자유와 평화,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하던 시민들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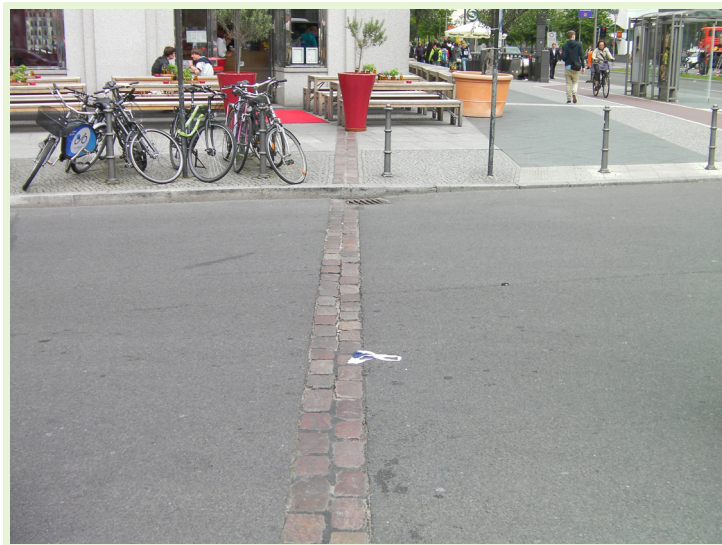
현재 베를린장벽은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철거되었다. 포츠담광장 근처의 테러전시관과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서 비교적 긴 장벽을 볼 수 있다.



▲ 베를린장벽 벽화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벽화는 통일 이후 동베를린 쪽 벽에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그린 것이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가장 길게 보존된 베를린장벽이다. 입장료가 없는 옥외 전시장이다. 1990년부터 세계 여러 예술가들이 1,300m 길이의 베를린장벽에 다양한 그림을 그렸다. 동독인의 장벽 통과나 소련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와 동독 호네커(Erich Honecker) 간의 키스 장면을 포함하여 여러 정치적 풍자, 초현실주의 그림, 낙서들이 그려져 있다.



▲ 베를린장벽 표시석

두 줄의 붉은 벽돌로 표시되어 있는 베를린장벽 표시석은 신축 건물 등으로 인하여 연결되지 않는 곳이 여럿 있다. 사진은 포츠담광장에 설치된 표시석인데 역시 끊어져 있다.

베를린장벽이 철거된 자리 가운데 80km 정도는 도시 바닥에 두 줄의 붉은 돌로 표시되어 있다. 과거 베를린장벽 자리 위에 건물이 세워지고 해서 바닥에 표시된 두 줄의 표시석은 자주 끊긴다. 베를린 시정부는 장벽 조각을 갖고 있는 개인들에게 최고 1,000유로씩 지급하고 사들여 베를린장벽을 복원하고 있다. 외국인들뿐 아니라 독일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베를린장벽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너진 장벽의 흔적에서도 역사적 교훈을 읽으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힘들게 얻은 자유와 통일의 가치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155마일 길이의 MDL(군사분계선) 가운데 실제 일련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은 JSA(공동경비구역)이다. JSA는 군사분계선과 관계없이 쌍방이 공동으로 경비하던 구역이었다. 북한 지역에서 JSA로 들어오는 통로였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측 초소는 홀로 북측의 여러 초소와 대치하여 지리적으로 취약한 곳이었다. 따라서 후방의 지원이 필요하였고 유엔사 제5관측소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측 초소의 대표적 후방 지원 관측소였다. 그런데 초소와 관측소 사이에 키 큰 미루나무 한 그루가 높이 있어 제5관측소에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잘 관측할 수가 없었다. 1976년 8월 18일 이 미루나무 절단 작업에 참가한 미국 장교 두 사람을 북한 경비병들이 도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미군을 포함한 남측이 미루나무를 절단하고 북한군 초소를 파괴하는 대응을 보였다. 도끼만행사건 이후 판문점은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이름과 달리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분할 경비되고 있다.



▲ 판문점

남측 군인이 북측의 판문각을 주시하고 있다.

JSA 안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과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비롯하여 자유의 집, 판문각, 평화의 집, 통일각 등이 있다. JSA에서도 베를린장벽 표시석처럼 건물 때문에 군사분계

선 표시석이 끊겨져 있다.



▲ JSA의 군사분계선 표시석

군사정전위원회 건물 사이에 한 줄로 낮게 설치된 콘크리트 턱이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고 있다.

JSA 군사분계선 표시석이나 베를린장벽 표시석 같은 분단의 표시물들은 한낱 돌덩이가 아니라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물이다. 전쟁과 분단은 역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하고 없애는 것보다 긴 안목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 베를린 장벽 기념석들

을 보면서 남북분단의 기념품을 생각하게 된다.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DMZ에서 걷어낸 녹슨 철조망 조각이 관광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150,625개만 한정판매되는데 각각의 제품에는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한다. 비무장지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양측 200만이 넘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고 지뢰, 대전차 장애물 등 각종 중화기가 들어차 지구상에서 가장 중무장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DMZ. 그 DMZ의 슬픈 역사를 증언하며 녹슬어갔을 철조망을 걷어 만들어진 기념품에 인류 평화의 염원을 담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왜 베를린 장벽 기념석이나 DMZ의 녹슨 철조망 같은 상처의 흔적들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것은 아마도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능 때문일 것이다.

CHAPTER 02_분단선, 그 경계와 금지를 넘어

03

가르텐슐래거 vs 주성일

- 목숨 건 탈출

서독은 베를린장벽이 세워져서 무너진 기간 동안 4만 명에 가까운 동독 정치범과 25만 명에 이르는 그들의 가족을 서독으로 데려왔다. 대신에 약 35억 마르크(약 2조 원)에 이르는 돈을 동독에게 지불하였다. 즉 돈 주고 산다는 프라이카우프(Freikauf)이다. 동독에 돈을 주어도 서독을 침공할 군사력은 증강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독인이 동서독 경계선을 월경하여 서독으로 탈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여러 장애 가운데 상징적 하나는 SM-70 대인(對人)지뢰이다. 동독 정부는 1970년부터 1984년까지 베를린장벽을 제외한 동서독 경계선 전역에 약 6만 개의 SM-70을 설치했다. 동독 정부는 SM-70을 자동발사장치라고 부르며 단순한 지뢰보다 더 우수한 월경방지장치로 인식하게 하여 탈출자를 억제시키기도 했다.



▲ SM-70 대인지뢰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비인도적 대인지뢰로 국제사회 여론에 의해 동서독 경계선에서 철거되었다.

SM-70의 운명은 동독 정치범 미카엘 가르텐슐래거(Michael Gartenschläger)의 운명과 함께 했다. 1971년 동독에서 탈출하여 함부르크에 거주하던 가르텐슐래거는 1976년 3월 동서독 경계선에 접근하여 SM-70 1개를 분해하여 서독 당국에 제공하였으며, 4월에도 두 번째 SM-70 탈취에 성공했다. 그러나 5월의 시도에서는 동독 국경수비대 총격으로 즉사했다. 가르텐슐래거가 가져다준 샘플로 SM-70의 잔혹성을 확인한 국제여론은 동독 정부를 비난하게 되었다. 당시 외화 부족을 겪고 있던 동독

정부는 서독 정부의 차관제공을 계기로 SM-70을 모두 철거하였다. 대신 PMN 지뢰가 동서독 경계선에 더 많이 매설되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와 인접지역에도 수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 지뢰 매설에 대한 정보가 있는 남측 관리 지역은 ‘지뢰지대’로, 매설 정보가 부족한 지역은 ‘미확인지뢰지대’로 표시하고 있다.



▲ 지뢰 표지판

가칠봉 관측소에서 바라본 양구군 해안면이다. 편치불 즉 화체그릇처럼 움푹 패어 있는 지형이다.

남북한 분단선은 동서독 분단선보다 훨씬 더 두텁다. 독일의 분단선에는 게이트가 늘 존재했지만, 한반도 DMZ(비무장지대)에는 여러 통문(通門)과 교통문이 있어도 민간인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은 아니다. 무장된 한반도 DMZ를 통해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상대지역으로 탈출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각종 철책선도 있고 열영상장비(TOD; Thermal Observation Device)와 같은 첨단 경계시설도 있어 각종 장애물을 뚫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DMZ를 통한 어려운 탈북 과정은 도라산전망대 앞 북한군 2군단 직속 민정부대의 대남방송국 조장으로 있다가 2002년 4월 귀순한 주성일 상급병사(병장)의 탈출 수기인 『DMZ의 봄』(시대정신, 2004)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지역의 DMZ는 그 한계선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철책선들이 있다. 이중 가시철책선과 격자철망 등의 철책선이 있으며, 철책선에는 감시등이 설치되어 있다. DMZ 내의 모든 북한의 초소는 주위에 원형 철조망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초소 근무자가 탈북하기 위해서는 이 철조망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둘째, 돌벼락 폭탄, 창이나 대못을 거꾸로 꽂아놓은 함정, 종이 매달린 전기 장치 등의 비교적 덜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다. 깊이 5미터, 너비 4미터의 큰 도랑 형식의

탱크 차단물에는 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는 길목에는 감시병이 근무한다. 3인의 무장군인들이 근무하는 50미터 마다의 잠복호도 지나야 한다. 셋째, DMZ 통과 시 큰 장애물 하나는 고압선이다. 주로 16선 철책선과 가시철책선 사이에 위치한 고압선 장애물은 1만 볼트의 고압선을 비롯해 2천~8천 볼트의 전기선이 몇 겹으로 설치된 것이다. 끝으로, 북측 고압선과 더불어 DMZ 통과 시의 큰 장애물은 지뢰이다. 반(反)탱크지뢰, 반(反)보병지뢰, 필갑지뢰, 말뚝지뢰, 선(線)지뢰, 75기계지뢰 등 30종이 넘는 각종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

북한의 DMZ 감시는 철저하다. 눈이라도 내리면 흔적이 남아 탈출이 실패하기 쉽다. 북한군의 탈출 수기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군화 대신 지하족(천으로 된 신발)을 신고 이동하고 또 고압선을 통과하기 위해 접지봉과 짝지발을 사용하여 탈출하다가 동료는 고압선에 즉사하는 생생한 내용이 담겨있다. DMZ는 동서독 경계선보다 더 첩첩으로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DMZ를 통한 탈출이 목숨을 거는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유를 향한 인간의 갈망이 그것을 감행하게 한다.

04

베를린장벽 십자가 vs 적군묘

- 죽어서 넘는 담과 죽어서도 못 넘는 담

베를린장벽이나 동서독 경계선을 넘으려다가 사망한 동독인의 수는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가운데 약 250명은 베를린장벽 근방에서 사망하였고 그 대부분이 베를린장벽이 세워진 1961년부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사이에 당한 것이다. 마지막 희생자는 장벽 붕괴 9개월 전에 희생되었다. 베를린 장벽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장벽희생자(Todesopfer der Berliner Mauer; Maueropfer)로 불린다.

브란덴부르크문과 제국의회의사당 사이의 베를린장벽 자리에는 근처 베를린장벽을 넘으려다가 사망한 70여 명을 기리는 흰 십자가가 진열되어 있다. 사망자의 이름과 사망일자가 적혀 있다. 죽은 후에야 동서독 경계선을 넘어 추모되고 있는 것이다.



▲ 베를린장벽 십자가

브란덴부르크문과 제국의회 사이의 담은 근처 베를린장벽을 넘다가 사망한 동독인들의 이름과 사망일을 십자가에 적어 추모하고 있다.

파주와 연천을 연결하는 37번 국도변,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산 55에 적군묘가 있다. 글자 그대로 아군이 아닌 적군의 묘이다. 제네바협정 추가의정서 제34조에 따라 조성된 묘지인데, 전국에 산재해 있던 적군의 유해들을 1996년 한 곳에 모은 곳으로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별로 없다.

2012년 5월 현재 북한군 727구와 중공군 329구의 유해가 묻혀있는데, 6·25전쟁 때 사망한 북한군과 중공군의 유해뿐 아니라 1968년 1·21 무장공비를 비롯한 여러 대남공작원의 시신

도 묻혀있다.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망자의 흰 비목의 앞에는 ‘무명인’이, 뒤에는 발굴 장소가 표기되어 있다. 묘의 향(向)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무장공비 침투를 부인하는 북한은 유해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단지 잠수함 등 결정적 증거가 있었던 1996년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의 유해는 인수하였다. 중국은 유해를 옮기지 않는 관습 때문에 유해를 잘 인수하지 않는다. 이들은 죽어서도 고국이나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 적군묘

파주 적성에 있는 적군묘이다. 죽어서도 북한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국군의 유해가 2012년 5월 처음으로 돌아왔다. 물론 북한에서 바로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것은 아니고, 미국을 거쳐 돌아온 것이다. 미국과 북한 간 협약에 의해 북한이 2000~2004년에 걸쳐 미국에게 전달한 유해 가운데 국군 유해로 판명되어 2012년 5월 미국이 대한민국에 인도한 것이다. 6·25전쟁 중에 전사한 국군의 유해 3~4만 구가 북한이나 DMZ(비무장지대)에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7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6·25 전사자 유해를 공동 발굴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6·25전쟁을 남한이 아닌 미국과 벌인 전쟁으로 주장하는 북한은 유해 공동발굴 사업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함경남도 장진호 인근과 평안북도 운산지역에서 225구의 유해를 발굴하였고 발굴비용으로 북한에 3만 달러 가까이 지급하였다. 6·25전쟁 때 전사 혹은 실종된 미군 가운데 1만 명 가까운 미군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유해를 발굴하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정책이다.

전쟁이 중지된 지 60년이 지나도, 유해조차 고향으로 오지 못하고 있다. 죽어서도 넘지 못하는 분단선이다. 통일 이전이라도 유해만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05

한슈타인성 vs 공예도성

- 분단선 위의 고성

독일은 연방제이고, 주 경계선 다수는 19세기 프로이센에 의해 통일되기 이전의 공국들 간 경계선이였다. 따라서 주 경계선과 일치했던 동서독 경계선에는 고성(古城)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동서독 간 경계선에는 11~12세기 중세시대에 건축된 브로머(Brome) 요새도 있었지만 현재는 그 흔적을 잘 찾을 수 없다. 헤센주와 튀링겐주 간의 남부 접경지역에 있는 벤델슈타인성(Burg Wendelstein)은 도심에 있어 그 흔적을 쉽게 찾아진다. 헤센주와 튀링겐주 간의 북부 접경지역이자 니더작센 주 와도 접경하고 있는 지역에는 고성(古城)인 한슈타인성(Burg Hanstein)이 있다.

한슈타인성은 중세시대에 신성로마제국이라는 황제 권력과 지방공국 간의 권력경쟁, 교황이라는 신정정치와 황제라는 세속정치 간의 권력경쟁의 장이기도 했다. 1308년 한슈타인 가문의 하인

리히와 리폴드(Lippold)는 마인즈(Mainz) 페테르 아슈펠트(Peter Aspelt) 대주교의 승인에 의해 한슈타인성의 성벽을 돌로 쌓기 시작하여 1414년 완성하였다. 30년 전쟁을 비롯한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성은 여러 차례 훼손되고 복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한슈타인성

한슈타인성에 가까운 들판 사이로 동서독 경계선이 지나갔다. 동독 국경수비대는 한슈타인성에서 감시를 했고, 동서독의 일반 주민들은 한슈타인성을 들어갈 수는 없었고 바라만 볼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튀링겐주가 동독의 관할에 들어감에 따라 한슈타인성은 동독 국경수비대의 감시탑으로 활용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서독 주민뿐 아니라 동독 주민도 방

문할 수 없었다. 물론 높은 성곽 때문에 동서독 주민 모두 바라볼 수는 있었다. 한슈타인성은 동서독 분단선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통일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독일 통일 이후에는 개방되어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8년에는 건립 7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남북한 분단선의 중앙에도 통일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 분단선의 중앙은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 철원이다. 물론 다른 중앙도 가능하다. 양구군에서는 국토의 극동(독도), 극서(마라도), 극남(마라도), 극북(유포면)이 교차하는 양구군 도촌리가 국토정중앙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내륙 등 극점의 다른 기준으로 스스로 중앙이라고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한슈타인성을 둘러싼 제후 간의 다툼은 태봉국 궁예 측과 왕건 측의 다툼을 연상시킨다. 896년 궁예는 철원에 도읍하였다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896년 왕건의 아버지 왕륜이 궁예에게 귀부하였고 궁예는 송악에 발어참성을 쌓고 왕건을 그 성주에 임명하여 송악에 대한 왕건 가문의 지배권을 인정해주었다. 898년 궁예는 송악으로 천도했고 901년 고려를 건국하여 스스로 왕으로 칭했다.



▲ 궁예도성터

보라색으로 표시한 선이 궁예도성터이다. 도성은 DMZ 내에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걸쳐 있어 가까이 가서 관찰할 수 없다.

905년 궁예는 1,000호의 청주 사람들을 철원으로 옮기고 철원 풍천원 별관에 도읍을 정했다. 도성(都城)의 남북 경계선은 DMZ(비무장지대)의 남북방 한계선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911년에 궁예는 국호를 태봉(泰封)으로 다시 변경했다. 918년 왕건은 궁예에게 반란하여 왕위에 올라 국호를 고려로 칭하였다. 궁예는 왕건의 반란 후 험준한 산골에 피했다가 평강 사람에게 살해되었다고 삼국사기와 고려사에서 언급되고 있다. 궁예가 왕건에게 패하여 피신한 산은 구전에 의하면 울음소리산(鳴聲山)을 포함하여 한둘이 아니고 궁예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명도 매우 많다. 궁예도성은 방어성이 아니고 거주공동체였다.

6·25전쟁 이후 궁예도성터에 여러 답사단이 출입했지만 엄밀한 의미의 발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분명 이 땅의 역사에서 한 시대에 존재했으나 이제는 DMZ의 풀숲 속에 모습을 감춰버려 그 규모와 흔적을 짐작만 할 뿐이다. 1980년대부터 철원군은 매년 가을 태봉제를 개최하고 있다. 2004년에는 정도(定都) 1,100주년을 기념하였다. 후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궁예의 도성터는 통일 한국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문화 유적지이다.

공예도성터를 비롯한 몇몇 유적지에 대한 남북한 공동발굴의 아이디어는 오랜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과거의 공유가 미래 변화의 매개가 될 수 있다.



06

유럽 그린벨트 vs 철원 두루미

- 분단과 경계를 넘어서는 가치

통일 이전의 동서독 분단선에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있다. 동서독 분단선이 지났던 대표적 지역은 하르츠(Harz) 지역이다. 동서독 분단 시기에는 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생태자연이 잘 보전되었다. 독일 통일 이후 이 지역의 주 수입원은 관광이다. 하르츠 지역끼리 관광객 모집을 경쟁하다 보니 갈등도 종종 발생하지만, 동서독 분단선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 유럽의 그린벨트가 독일 통일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주로 동독지역의 50~200m 폭의 완충지대(순찰로 포함)가 그린벨트로 되었다. 종(種) 보전을 중시하는 독일환경자연단체 분트(BUND; 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가 그린벨트 지정을 추진하였다. 동서독 분단선 지역들 다수가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유럽그린벨트의 주요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다.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접경지역생태보호구역 다수가 철의 장막 (Curtain of Iron)을 따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핀란드까지 약 15,000km 길이의 철의 장막이 유럽그린벨트로 되고 있다.



▲ 철의 장막 그린벨트

냉전시대 철의 장막이 탈냉전시대에는 그린벨트로 조성되고 있다.

동서독 분단선을 구성하였던 엘베강의 생태적 가치도 높다. 1923년 안할트 환경보호법 이래 작센안할트주의 엘베강 유역 생태보전의 역사는 매우 다양했다. 1979년 작센안할트주의 엘베강 유역 일부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R ; Biosphere

Reserve)로 지정되었다. 독일 통일 후 엘베강 BR은 엘베강이 동서독 분단선으로 기능했던 작센안할트주,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 니더작센주 등의 5개 주로 확장되었다.

엘베강 BR은 중유럽에서 가장 넓은 수초(水草)지대이다. 서식 곤충도 다양해서 2005년에는 새로운 종(種)의 꽃등애가 발견되기도 했다. 겨울철새들을 포함한 수많은 조류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스칸디나비아와 러시아에서 온 물새들이 겨울을 나는 곳이다. 다수의 두루미 개체들은 가을 발트해안에서 집결했다가 이베리안 반도에서 월동(越冬)하기 전에 중간 기착지로 엘베강 유역에 머무른다.

오늘날 한반도 DMZ(비무장지대)의 논의 가운데 활발한 분야는 생태이다. DMZ에 지속적으로 서식하는 동식물뿐 아니라 철새의 생태적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DMZ에서 관찰되고 있는 400여 종의 조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철새이다. 천연기념물 제201호 큰고니, 제202호 두루미, 제203호 재두루미, 제228호 흑두루미, 제243호 독수리 등이 DMZ에서 월동한다. 동식물뿐 아니라 한 겨울에도 샘물이 나오는 철원 천통(泉桶)리 샘통도 천연기념물 제245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 한탄강 지류인 차탄천변,

행정구역으로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일대가 천연기념물 제412호로 1999년 지정되었다. 세계적 희귀종 물거미(*argyroneta aquatica*) 서식지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겨울 철새의 비상

철원 민간인통제구역 내 토교저수지에서 겨울철 새벽 쇠기러기들이 잠에서 깬 후 비상(飛上)하고 있다. 낮에는 많은 독수리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많은 철새들이 해마다 때가 되면 철원을 찾아오는 이유로 몇 가지를 들자면, 먼저 도시화가 덜 되어 인간의 간섭이 적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지역은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경계심이 많은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이다.



▲ 두루미와 재두루미

철원 DMZ 남방한계선 인근 농경지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두루미와 재두루미이다.

그렇다고 철새들은 인간이 전혀 살지 않는 곳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철새들이 겨울에 추운 번식지를 떠나는 이유도 추위보다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원은 쌀 생산이 많은 지역이다. 두루미 방문 개체수가 급증한 시점과 기계식 추수를 도입한 시점이 대체로 일치한다. 콤바인과 같은 기계농업은 논에 낱알을 많이 남기게 되는데, 이 낱알이 두루미를 유인하는 것이다. 또 철원지역은 한탄강을 비롯한 식수원도 풍부하다. 특히 한겨울에도 썩

15도 정도의 샘물이 나오는 곳이다. 인간출입과 자연생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이 된다.

두루미와 같은 겨울 철새는 자유롭게 MDL(군사분계선)을 넘는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새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DMZ의 두루미를 멸종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월동지뿐 아니라 번식지와 통과지 모두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동 경로 가운데 한 곳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곧 전체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의 두루미들은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남한에서 월동하거나 중간기착하는 두루미들 가운데 북한에서 머무르는 개체가 많다는 것이 인공위성 추적 연구로 확인된 바 있다. 분단과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두루미 네트워크가 잠재적으로 통일 네트워크의 한 가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5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03

통일을 기다리며

- 01. 뤼베크 소금창고 vs 연백/석모도 염전
- 02. 무스카우공원 vs 백두산
- 03. 라인강 고성 vs 임진강 고성
- 04. 포크트란트 벽돌다리 vs 승일교
- 05. 브란덴부르크문 vs 도라산역

01

뤼베크 소금창고 vs 연백/석모도 염전

- 한 알의 소금에 담긴 뜻

동서독 분단선에 인접한 뤼베크(Lübek)는 12세기 중엽에 형성된 오래된 도시이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시이기도 하다. 뤼베크의 전성기는 14세기 한자(Hansa)동맹의 전성기와 함께 했다.

뤼베크에서는 소금중개무역이 활발했다. 북유럽에서 소금은 백금(白金)으로 불릴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물품이었다. 북유럽에서 잡은 생선을 중유럽이나 남유럽에 운송하기 위해 소금이 필요했고, 육류 소비량 증대에 따라 소금 수요량도 증대했었다. 당시 북유럽은 일조량 부족으로 태양열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天日鹽) 생산이 어려웠다. 대신에 소금바위를 깨서 채굴하기도 하고 또 소금바위 지하에 흐르는 물이나 소금바위에 인위적으로 투입한 물을 받아서 증발시켜 만든 암염(巖鹽)을 사용하기도 했다. 뤼네부르크(Lüneburg)에서

생산된 소금은 뤼베크에 집결하였고, 트라베강 유역에 위치한 뤼베크 소금창고는 부의 상징이었다. 개방과 교류의 매개였던 소금이 부를 가져온 것이다.



▲ 뤼베크 폐소금창고

소금창고건물은 더 이상 소금창고로 사용되지 않고, 쇼핑몰이나 다른 물건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한강 하구 수역은 서울로 출입하는 선박들로 붐볐다. 또 황해도와 경기도를 오가는 여러 배들도 많았다. 분단 이전까지 소금의 주 생산지는 황해도와 평안도였는데, 특히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 해남리의 연백 염전은 동

양최대라고 불리는 대규모였다. 연백 염전은 38선 이남이었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도 소금을 서울 등 남한 각지에 공급할 수 있었다.



▲ 석모도 해안

석모도 폐염전에는 넓은 소금창고와 염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런데 1953년 정전협정으로 황해도 전체가 북한에 속하게 됨에 따라 남한의 소금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무렵 인천 금호동 일대의 염전엔 피란 온 연백 사람들이 소금을 생산하여 생활하였다. 한편 6·25전쟁 휴전 직후 강화도 앞 석모도의 일부

해안도 매립되어 염전으로 개발되었다.

북한 땅에 가까운 남한 땅은 모두 인간의 출입이 자유롭게 못하다. 출입이 어려울뿐 아니라 인근 해역에서 자유롭게 어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나 염전은 배를 타지 않고도 가능한 산업 가운데 하나였다. 석모도 천일염은 염도가 낮은 고급 소금으로 평가되었으나 경제성이 맞지 않아 2006년경에 폐쇄되었고, 지금은 폐염전과 폐소금 창고의 모습만 볼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소금이 지니는 가치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분단국의 어떤 시민은 한 알의 소금에서도 개방과 폐쇄의 의미를 읽어내기도 할 것이다. 황해도 연백은 분단 전 독일의 뤼베크처럼 물류적 개방성을 갖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폐쇄된 환경에서는 산업이나 문화가 발전될 수 없다. 폐쇄된 환경에선 다양성이 잘 보전되지 않고 반대로 퇴화만 있을 뿐이다. 연백 염전은 남한과 연결될 때 경제적 생산성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도 증대될 것이다.

02

무스카우 공원 vs 백두산

- 인접국과의 협력

독일이 동서독 분단선만큼이나 큰 관심을 가졌던 국경선은 폴란드와의 국경선이다.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선인 나이세(독일어명 Neiße, 폴란드어명 Nysa)강에는 다른 국경지역처럼 폴란드 국경은 붉고 흰 색으로, 독일 국경은 검정·빨강·노랑의 말뚝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이세강 유역에 약 3.5km²의 폴란드 영토와 약 2.1km²의 독일 영토에 걸쳐 무스카우 공원(독일명 Muskauer Park ; 폴란드명 Park Mużakowski)이 조성되어 있다. 무스카우 공원을 둘러싼 약 17.9km²의 독일과 폴란드의 영토가 완충지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무스카우 공원의 명칭은 이 공원의 설립자 헤르만 폰 뤼클러-무스카우 왕자(Prince Hermann von Pückler-Muskau, 1785~1871)에서 따온 것이다. 1815년경 무스카우 왕자는 크고 화려한 영국식 정원을 구상하고 여러 구조물을 조성하기 시작

했다. 그러나 1845년 무스카우 왕자의 부채 때문에 공원이 매각 되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2차 세계대전 후 독일-폴란드 국경이 오데르-나이세(Oder-Neisse)강으로 됨에 따라 무스카우 공원도 독일과 폴란드로 나뉘었다.



▲ 무스카우 공원
독일-폴란드 국경선인 나이세강을 끼고 있다.

1989년 동독과 폴란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진 후 무스카우 공원은 독일과 폴란드에 의해 공동 재개발되고 있다. 두 나라의 경계인 다리는 2003년 재건축되었다. 2004년 유네스코는 이 공

원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했다. 유럽 대륙 대부분의 정원들이 정방형(正方形)과 같은 인위적인 모습인 반면에, 무스카우 공원은 영국식 정원(English garden)이라 친환경적 조경(造景)의 모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폴란드가 셴겐협정(Schengen Agreement)에 가입함에 따라 무스카우공원의 국경검문도 없어졌다. 오늘날 독일과 폴란드는 세계문화유산 공원을 모범적으로 공동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백두산은 북한의 신청에 의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어 있다. 중국도 창바이산(長白山) 이름으로 신청하여 등재되어 있다. 백두산에는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관광수입도 10억 위안 이상으로 중국 정부는 발표하고 있다. 북한의 수입은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압록강과 두만강은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이다. 1962년 북한과 중국은 당시 두 하천에 존재했던 269개 섬과 182개 모래톱에 대해 관할권뿐 아니라 후에 생길 섬과 모래톱에 대해서도 원칙을 정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은 이미 변계(邊界)조약으로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식량난 등이 북·중 국경의 안정화와 생태보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 백두산 천지

백두산 천지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이다. 백두산은 북한과 중국이 각각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하였다.

독일 통일의 예에서 보듯이 자의든 타의든 주변국의 동의는 통일 달성에 필수적이다.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가와의 긴밀한 협조는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배타적 민족주의적 통일은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 주변국들은 독일이 닫힌 민족주의 대신에 열린 민족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독일 통일을 반대하지 않았다. 한반도 통일도 민족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면서 개방적인 자세로 임할 때 주변국의 협조가 가능할 것이다.

03

라인강 고성(古城) vs
임진강 고성(古城)

- 통일제국의 추억

독일의 역사에서 최초의 통일은 언제일까? 1871년부터 1918년까지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던 독일제국은 제2 제국으로 불린다. 제1제국으로 불리는 신성로마제국은 962년 오토 1세부터 1806년 프란츠 2세까지의 기간이다. 따라서 통일 독일의 추억은 신성로마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성로마제국은 라인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라인강은 스위스의 산에서 발원하여 독일과 네덜란드를 거쳐 북해로 가는 유럽의 긴 강이다. 뤼데스하임(Rüdesheim)에서 코블렌츠(Koblenz)까지의 약 65km의 라인 계곡은 200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라인강 물길이 꺾이는 곳이 그 유명한 로렐라이(Lorelei)이다. 로렐라이언덕과 라인강 계곡을 따라 축성된 고성(古城)들은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따라 축성된 초소들과 그 모습이 유사한데 저마다 설화들이 내려오고 있다.



▲ 라인슈타인성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없었던 대공위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루돌프 1세가 황제로 선출되었다. 라인강의 라인슈타인성은 루돌프 1세의 근거지였다.

라인슈타인성은 11세기에 최초로 지어진 성으로 라인강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성이라고 한다. 신성로마제국 황제 루돌프 1세가 이곳을 기지로 도둑기사단을 공격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신성로마제국 이전이나 대공위시대(大空位時代; Great Interregnum)에 축조되었거나 활용되었던 시절에 관한 설화들은 주로 약탈과 혼란에 관한 것이다. 라인강변에 성들이 많은

이유는 현지의 권력자들이 통행세를 받기 위해서였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약 20년 동안 선출되지 못했던 13세기 중반 대공 위시대에도 영주의 횡포에 대한 황제의 견제가 없었다. 1270년 대 합스부르크왕가의 루돌프 1세가 황제로 선출됨으로써 지방영주에 대한 견제가 작동했다.



▲ 팔츠그라펜슈타인성

라인강의 작은 섬에 있는 팔츠그라펜슈타인성은 지나가는 선박으로부터 통행세를 징수하기 위해 루드비히 황제가 축조한 성이다.

착취는 지방영주만 하는 게 아니라 황제에 의해서도 자행되었다. 14세기 신성로마황제 루드비히는 라인강 한 가운데에 있는

섬에 팔츠그라펜슈타인성(Burg Pfalzgrafenstein)을 축성하여 통행세를 징수하였다. 신성로마제국의 정치력은 독일 30년전쟁(1618~1648)을 종식시키는 베스트팔렌조약으로 소멸되었다. 그 이후 근대국가 체제가 태동하였다. 억압받는 백성들의 저항이 국가의 체제를 바꾼 것이다.

한반도 통일제국의 대표적 현장은 임진강 유역이다.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임진강 유역에서 각축을 벌인 흔적과 통일신라 및 고려의 유적이 발견되는 곳이다. 임진강에서 고성 성곽들을 찾을 수는 없지만 고성터들은 여럿 발견된다.



▲ 호로고루성 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에서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지류가 흐르면서 형성된 대지 위에 조성된 강안평지의 성이다.

임진강 북안의 호로그루(瓠蘆古壘)는 물길이 낮아 배 없이 도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오래된 보루이다. 삼국시대 때 고구려와 백제가, 또 고구려와 신라가, 또 신라와 당나라가 치열한 싸운 기록이 있는 곳이다. 현재 통일전망대로 이용되고 있는 오두산성도 역사서에 자주 등장하는 관미성이라는 주장이 있는 곳이다. 임진강은 이외에도 당포성을 비롯해 여러 석성과 은대리성을 비롯한 여러 토성의 흔적들이 발견되는 곳이다. 대부분 강안 평지에 축성된 흔적들이다. 라인강 고성과 달리 임진강의 고성터들은 기본적으로 침략 목적보다 방어 목적으로 축성되었다.

임진강 고랑포 나루터 뒤편의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는 마지막 신라왕 경순왕의 무덤이 있다. 경순왕은 후백제 견훤의 경주 침공시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사망한 후 즉위한 마지막 신라왕이다. 경순왕은 자신의 장자인 마의태자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려에 귀부하였고 경주를 식읍으로 받고 경주 사심관을 지냈다. 근처의 도라산(都羅山) 명칭도 경순왕이 신라 도읍을 그리워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 경순왕릉

통일신라 마지막 왕의 무덤은 경주를 떠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비석에는 총탄의 흔적이 있다.

임진강에는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흔적도 있다. 임진강변의 아미산 자락에는 승의전 터가 있다. 승의전은 1397년 조선 태조가 고려 태조를 비롯한 여러 고려왕들의 제사를 지내게 한, 왕씨고려의 종묘라고 할 수 있다.

임진강이 한강과 합류하는 하구에는 염하(鹽河), 즉 강화해협도 만난다. 염하의 김포쪽 기슭에 손돌(孫突) 묘가 있다. 염하의 손돌목은 라인강의 로렐라이를 연상시킬 정도로 물길에 꺾이

는 곳이다. 강폭이 좁은 목은 거리가 가까워서 도하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빠른 물살 때문에 더 어렵다. 고려시대 몽고 침략 때 손돌은 왕을 모시고 뱃길을 몰았지만 거친 풍랑으로 왕의 의심을 사서 처형되었다는 등 여러 설화들이 전해 내려온다.

김포시에서는 1232년 7월 고려 고종의 강화도 천도를 기준으로 매년 음력 10월 20일을 기일로 정해 손돌공 진혼제를 봉행하고 있다. 음력 10월 20일 전후의 추운 날씨는 손돌바람, 손돌풍, 손돌추위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정치권력이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희생시키는 모습은 라인강에서 통행세를 강제로 징수하는 성주의 모습과 닮았다.

04

포크트란트 벽돌다리 vs

승일교

- 접경지역발전

동독 작센 주의 포크트란트(Vogtland) 지역은 서독 바이에른 주와 접경한 지역이다. 독일 통일 이후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벽돌다리가 대표적 볼거리이다. 필치계곡다리(Göltzschtalbrücke)는 높이가 거의 80m에 이르고 길이가 600m에 이르는 철도 벽돌다리인데, 들어간 벽돌 수가 약 2,000만 개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근처의 엘스트계곡다리(Elstertal- brücke)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벽돌다리이다.

필치계곡다리는 1846년부터 1851년에 걸쳐 준공되었다. 동독의 라이프치히와 서독의 호프를 연결하는 구간이었으나 분단 시절에는 호프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지난 150년 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리 위에서 투신하여 자살 다리로도 알려져 있다. 통일 이후 교량 개선작업에 유럽연합도 참여하고 있다. 호프까지의 연결은 유럽 전체로의 연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훨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 팔치계곡다리

세계 최대의 벽돌 다리이다. 동서독 분단시절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다가, 통일 이후에는 수송용뿐 아니라 관광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철원 승일교는 한탄강을 건너는 가장 오래된 다리이다. 승일교의 아치 모양은 다리 중간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이 서로 다르다. 1948년 북한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서쪽 절반만 완성한 상태에서 6·25전쟁이 발발했다. 1958년 남한이 나머지 동쪽 절반을 완공하였다. 짧은 다리 하나 완공에 10년이나 걸린 셈이다. 남한 이승만의 승(承)자와 북한 김일성의 일(日)자를 합친

명칭이라는 주장도 있고, 김일성에게 승리한 의미의 승일(勝日) 교라는 주장도 있으며, 6·25전쟁 당시 한탄강을 건너 북진 중에 전사한 박승일(昇日) 대령을 추모하는 명칭이라는 주장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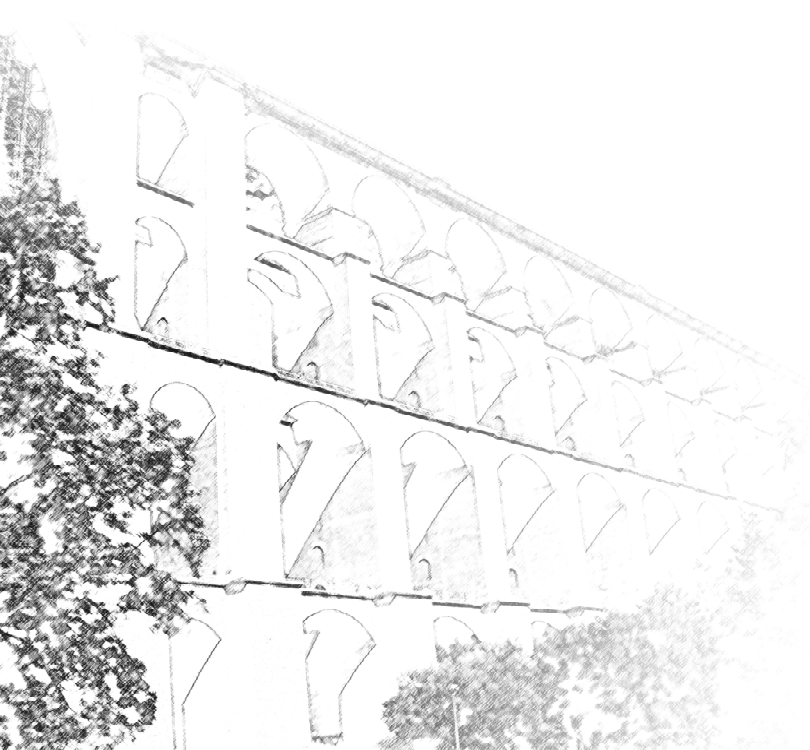


▲ 승일교

교량 디자인은 왼쪽과 오른쪽이 조금 다르다. 왼쪽 절반은 6·25 전쟁 이전에 북한이 세웠고, 오른쪽 절반은 전쟁 이후에 남한이 완공하였다. 결과적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만든 다리이다.

남북한이 합작한 다리는 철원 외에 고성에도 있다. 고성 거진읍과 간성읍을 연결하는 교량인 북천교(北川橋)는 남북한이 함께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합축교(合築橋)로 개칭되었다. 북한

이 남쪽 절반을 1946년부터 6·25전쟁 발발 때까지 완성했고, 남한이 1960년 나머지 북쪽 절반을 완성하였다. 남북 합작의 사실이 지역사회에 상업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통일과 관련되어 여러 상징적 소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05

브란덴부르크문 vs 도라산역 - 통일을 향하여

브란덴부르크문(Brandenburger Tor)은 1788~1791년 프리드리히 빌헬름(Friedrich Wilhelm) 2세의 명령으로 건축되었다. 1806년 10월 나폴레옹이 베를린 전쟁에서 승리한 후 브란덴부르크문 위의 장식품인 네 마리 말을 타고 있는 승리의 여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프랑스를 이긴 프로이센이 파리에 입성하여 여신상을 다시 베를린으로 가져왔고 1814년 8월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여신상을 원래 자리에 두었다. 브란덴부르크 광장은 프로이센군의 파리 점령을 기념해 파리광장(Pariser Platz)으로 불렸다.

분단 후 동독은 여신이 들고 있던 독수리 모양의 장식품 대신에 동독 국기를 걸었다. 통일 후에는 본래 장식품이 다시 걸려 있다.



▲ 브란덴부르크문

동베를린쪽에서 촬영한 독일 역사의 현장 브란덴부르크문이다. 베를린장벽은 문 바로 뒤쪽에 세워져 있었다.

베를린의 정치적, 세계사적 상징성 때문인지 종종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국가의 주요정책을 천명하기도 한다. 1963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브란트(Willy Brant) 서베를린 시장의 초청으로 시청사를 방문하여 “오늘날 자유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Ich bin ein Berliner)라는 것”이라며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또 1987년에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 이 장벽

을 허무시오(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라고 외친 것은 세기의 명연설로 유명하다. 레이건의 연설이 일종의 선견지명이었는지 베를린 장벽은 1989년 마침내 무너졌다. 그 장벽 앞에 세워진 브란덴부르크문이 자유를 향하여 활짝 열린 것이다. 한편 한국의 대통령들에게 베를린은 대북한 선언의 장소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을 이곳에서 천명했다.

베를린 장벽, 그리고 브란덴부르크문. 우리에게도 각별한 그 문의 폐쇄는 전쟁과 분단을, 개방은 평화와 통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도라산역에서 브란덴부르크까지 가려면 비행기로만 가능하다. 한국에서 독일로 가는 비행기를 타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바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횡단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한반도는 대륙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남북한의 철도가 연결된다면 중국횡단철도(TCR)나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남북한 분단선은 동서독 분단선과 연결될 수 있다.



▲ 도라산역

경의선의 남측 최북단 역이다.

남북한을 관통하는 철도 노선 가운데 단절 구간이 가장 짧은 노선은 서울-신의주 간 경의선, 즉 북한에서는 평양-부산 간 평부선으로 부르는 철도였다. 2002년 4월 남북한이 경의선 연결식을 이미 열었지만 열차가 다니지는 못하고 있다.

도라산역은 경의선의 남측 최북단 역이다. 역사에는 서울 56km, 평양 205km라는 표지판이 있다. 2002년 2월 미국 부시 대통령은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철도 침묵에 “이 철도로 한국 가

족들이 합해지기를 바란다(May This Railroad Unite Korean Families)”라고 서명하고 연설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브란데부르크문이 열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였던 것처럼 한반도 분단선이 사라지고 끊어진 철도가 연결되는 것도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독일의 모습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봐야하는 이유이다.

참 고 문 헌

- 김재한(편), 『DMZ - 발전적 이용과 해체』, 서울: 소화, 1999.
- 김재한(편), 『DMZ II - 황적 분단에서 종적 연결로』, 서울: 소화, 2000.
- 김재한, 『DMZ평화답사』, 서울: 오름, 2006.
- 김재한, “분단국체제 이탈자 문제와 비무장지대,” 『통일전략』, 제6권 제1호, 2006.
- 김재한, “DMZ 연구의 오해와 논제,” 『통일문제연구』, 제23권 제2호, 2011.
- 김재한, “독일 분단선과 한반도 DMZ,” 『통일전략』, 제12권 제1호, 2012.
- 김재한, “통일독일 국경의 탈근대적 안정화,” 『영토해양연구』, vol.3, 2012.
- 이문항, 『JSA - 판문점』, 서울: 소화, 2001.
- 주성일, 『DMZ의 봄』, 서울: 시대정신, 2004.
- Kim, Chae-Han (ed), *The Korean DMZ*, Seoul: Sowha, 2001.
- US Department of State, "Maritime Boundary: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German Democratic Republic," *Limits in the Seas*, 74, Washington, DC: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1976.

- | | |
|-------------------------------|--------------------------------|
|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 18 북한의 의료실태 |
|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 19 북한의 법제 정비 동향과 특징 |
| 03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 20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
|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 21 북한의 체육실태 |
|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 22 북한 문화재 실태 |
| 06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이해 | 23 북한의 대남전략 |
| 07 남북관계 역사 인식 비교 | 24 독일통일 20년:현황과 교훈 |
|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었나? | 25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
| 09 남북한 IT용어 비교 | 26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
|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 27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
|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 28 통일필요성의 재인식 |
| 12 정보화 시대,북한의 정보화 수준 |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
|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 30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
| 14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
| 15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이야기 | 32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
|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그 실태 | 33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
|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 34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5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발행일 2012년 8월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142-715,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전화 02)901-7161~7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디자인/인쇄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정보화인쇄사업단 전화 02)2167-3274~6

〈비매품〉

